

광주문화재단, '님을 위한 행진곡' 시민음악회...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2월호

# 2023년 끝자락 다시한번 '민주를 노래하다'

'그 날이 올때까지'·'순이생각' 등 '열사 추모' 합창·무용·뮤지컬 곡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올해 중순에도 다채로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볼 수 있었다. 망월동 묘역에서는 5·18 43주기 추모제가 펼쳐졌고, 금남로에서는 희생 영령의 넋을 기리는 민주평화 대행진과 전야제 등이 열렸다. 이외에도 수많은 공연들이 민주항쟁의 의미를 떠올리게 했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들은 민주화 운동을 현재화하는 매개가 됐지만, 비교적 연말연시에는 5·18과 관련된 공연들이 소규모로 열리거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계묘년 끝자락에서 다시 한 번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뜻을 뮤지컬, 합창 등 음악으로 반추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7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되는 음악회 '빛의 도시, 민주를 노래하다'가 바로 그것. 공연은 '님을 위한 행진곡' 등에 깃든 광주의 정신을 모티브로,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뮤지컬 '광주'의 넘버(1막 끝에 나오는 화려한 곡)인 '그 날이 올때까지'를 들을 수 있다. 민주항쟁의 결의를 다지는 노래로 최우정이 작곡했다. 이어 '상륙수',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민중의 노래'가 관객들을 만난다.

합창 '오월의 노래', '나를 일으킨 친구', '광주여 무덤산이여'를 비롯해 '아 민주정부',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순이생각'도 레퍼토리에 있다.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투쟁하다 열세에 돌린 시민군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최소한의 요구 조건만 관철하자'는 쪽과 '계속 투쟁하고 협상하자'는 쪽으로 나뉜다. 일부가 떠나버리고



5·18 추모 뮤지컬 '망월 달을 바라다'에 출연한 '다락' 단원들. (다락 제공)

남은 시민군들이 산화해버린 동료 '순이'를 기리며 부르던 처절한 노래.

뮤지컬 '영웅'의 표제작 '영웅'은 을사늑약과 정미늑약 이후 국권을 침탈했던 일제에 저항하는 정신을 담은 작품이다. 민주정신을 유린하던 세력에 맞서 '저항'하는 의미를 투영했다는 점에서 5·18 정신과 겹쳐 보인다.

무용도 공연의 한 축을 맡는다. 김유진 댄스 프로젝트가 선보이는 '지우고 싶은 기억'은 5월의 상흔과 고통을 '몸짓'으로 승화한다. 김유진 댄스 프로젝트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무용 단체로 지난 8월 삶의 권태와 이상을 다룬 공연 'EDEN' 등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대미는 전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노래하며 대동 정신을 실현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김중률 작곡)이 장

식한다. 알려진 것처럼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 중 희생당한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1981년 창작된 작품이다.

당시 전남대 학생이던 김중률이 소설가 황석영의 자택에서 작곡했고, 감시를 피해 조악한 이동식 카세트로 녹음했던 급박한 상황 등은 아직까지도 안타까움, 저항정신 등을 떠올리게 한다.

김하정이 공연을 연출했으며 뮤지컬 배우 이지훈, 팜패라 그룹 진진클래식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외 뮤지컬단 다락, 1987합창단, 푸른솔합창단, 이소선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 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연남



### 마을주민과 함께한 '구멍가게가 사라진다' 화제의 문화 현장 '고흥 남진 트로트기념관'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이 저물어간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을 잘 실행해왔는지 돌아보고 다가올 2024년을 새롭고 알차게 구상해 볼 시점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12월호가 발간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집 '구멍가게가 사라진다'를 준비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마을공동체 중심에 있었던 구멍가게가 시대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대신 '도시의 구멍가게' 격인 편의점이 24시간 불을 밝힌다. 젊은 세대들은 구멍가게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에 더욱 익숙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렵사리 곳곳에 마을주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함평 '향교수퍼'와 영광 '명진수퍼'의 나이트를 헤아려본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40년 동학연구에 한걸음 걸여온 박광수 원광대 명예교수다. 지난 10월말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의 비'가 나주역사공원에 세워졌다. 한국과 일본의 동학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모금된 성금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128년 전 동학농민군의 해원과 역사적 진실규명에 헌신해 온 박 교수의 40년 동학연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화제의 문화 현장'으로 찾아온 곳은 최근 고흥에 등지를 튼 '남진 트로트기념관'이다. '트로트 가왕',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월조 오빠부대의 주역' 등 수많은 수석어울 지난 트로트 가수 남진은 데뷔 6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의 가수 인생과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남진 트로트기념관' 개관식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남진과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 3주년을 맞아

기획한 '황영성 초대전-우주가족 이야기' 전 현장으로 안내한다. 한국적 조형으로 '가족'이라는 주제를 천착해 온 화가의 60년 화업을 조명하고 1950년대 초기작부터 근작, 설치작품까지 밀도있는 전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송년 기획으로 2023년 지역 문화계를 결산하는 시간도 갖는다. 2023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한 해였다. 예술가들은 온라인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다채로운 창작의 결과물을 관객들에게 선보였고, 시민들과 관객들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곳곳의 문화현장을 찾아 예술의 향기를 즐겼다. 문화예술계 한 해의 활동과 결과들을 돌아본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이 향한 곳은 겨울여행의 최적지 영광이다. 백수산안도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겨울 여행은 더욱 반기를 수밖에 없다. 영광은 '물무산 행복산길'을 비롯해 천년 고찰 불갑사, 4대 종교(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유적, 삼형제 섬 등 많은 여행지를 품고 있다. 굴비한정식과 모깃잎송편, 보리떡(뽕), 천일염, 찜갈비 등 특산물도 여행자들의 미각을 사로잡는다. 백수산안도로 영광 칠산 타워에서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보자.

기획물 '새전남관광여지도'는 연말을 맞아 전남의 해남이 명소를 소개하고,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편은 대한민국 맛의 수도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와 '연인의 거리'로 안내한다.

이외에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은 예술 힐링 여행지 강원도 강릉과 양구로 떠나고, '호남의 누정' 여섯 번째 이야기는 활쏘기로 덕행을 살피는 심신수련의 전통공간인 광주 관덕정을 찾아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한 소년을 향한 나무의 아낌없는 사랑

ACC재단, 가족인형극 '나무와 아이'... 9~10일 어린이문화원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아이들 외에도 어른들에게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대표작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무를 통해 생각하게 해준다. 한 소년을 향한 나무의 아낌없는 사랑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년별 가족인형극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년별 가족인형극 '나무와 아이'를 공연한다. 오는 9~10일(오전 11시, 오후 3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이번 작품은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렛츠플레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렛츠플레이는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다.

이번 '나무와 아이'는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나무와 함께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는 이야기로 자연(나무)과 인간(소년)의 일생을 서로 교차해 보여준다. 탄생의 계절 봄, 성장의 계절 여름, 결실의 계절 가을, 소멸의 계절 겨울 등 사계절 순환과 맞물려 나무와 함께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울림을 준다.

하성국 어린이문화원장은 "이번 작품은 자연의 변화를 토대로 생로병사의 단계를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했다"며 "년별 인형극이라는 특징있게 대사를 최소화 줄이고 라이브 음악과 이미지 위주로 의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가족 인형극 '나무와 아이'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송기숙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다...5·18묘지서 2주기 추모식

'녹두장군'·'암태도' 등 역할

지난 2021년 별세한 송기숙은 남도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소설문단에 큰 발자취를 남긴 문단의 큰 어른이었다. 리얼리즘 문학의 거장으로, 생전에 그는 '녹두장군'을 비롯해 '암태도' 등 역할을 남겼다. 특히 부패한 봉건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녹두장군의 열망과 사상을 집진한 문체로 그린 '녹두장군'은 민초들의 사람다운 삶이 투영된 작품이다.

또한 송기숙은 지난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등과 함께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한 시대의 지식인이었다. 전남대 인문대학 건립에는 당시를 기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비석이 있다. 특히 송기숙 선생은 5·18민주항쟁 당시 고문과 해직 등의 아픔을 겪었으며 전남대 5·18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 송기숙 소설가(전남대 전 교수)의 2주기 추모식이 2일 오전 11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송기숙선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민주화운동지회·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관한 이번 추모식은 행동하는 지식인 표상으로 살다 간 송기숙의 올곧은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5·18민주화운동 관계자,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들, 사회단체 관계자, 유족, 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추모행진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인 추모식은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인 정양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 송기숙 소설가의 제2주기 추모식이 2일 오전 11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주 시인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김상운 송기숙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문학평론가인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추모사를 했다.

이어 송기숙기념사업회(약칭) 창립 경과보고 및 연보 낭독이 있었으며 박봉구 시인이 추모시 '깨끗한 문장 한 줄'을 낭독했다. 또한 1987합창단 중장으로 추모공연이 펼쳐졌고, 유족의 대표인사가 있었다.

이후 참석자들은 참배 헌화를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 제2 묘역으로 이동해 묵념, 헌화를 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정양주 회장은 "송기숙 선생님은 리얼리즘 문학의 거장을 넘어 우리 시대의 위대한 교육자, 사상가, 존경받는 큰 어른이었다"며 "국내외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평생 민주와

인권, 통일의 길을 걸었던 선생님의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으로 송기숙 교수와 인연이 깊은 이무성 소설가는 "송기숙 선생은 전남대 교수 시절 5·18민주항쟁 참여로 구속, 고문, 해직 등 고난을 당했다"며 "이번 추모식은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으로 살다 가신 그리운 교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전 이후 1시부터는 송기숙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민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위원장에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 시인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소설가인 채희운 전 광주여대 교수, 문과주 씨 등이 각각 선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아버지의 해방일지' 독서후기 공모전

전남대 도서관,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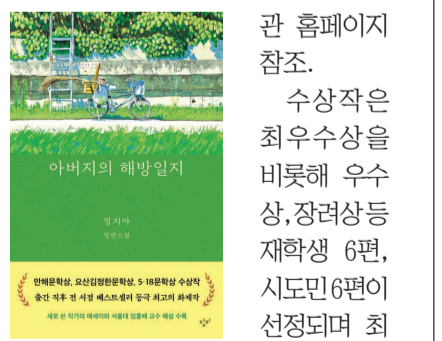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우리의 70년 현대사의 굴곡을 그리고 있다.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펼쳐지는 3일간의 시간은 역동적 이면서 웅장하다. 작가가 무려 32년 만에 펴낸 장편소설로, 삶의 현존을 직격하면서도 집진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번 작품은 만해문학상, 요산 김정환문학상, 5·18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독자들과 평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가 추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아버지의 해방일지' 독서후기 공모전이 열린다.

전남대학교도서관(관장정우원)은 독서후기 공모전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남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 도서



관 홈페이지 참조. 수상작은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등 재학생 6편, 시도민 6편이 선정되며 최우수상에는 총장상과 3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오는 22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우원 도서관장은 "이번 공모전은 현대사의 굴곡과 아픔을 드라마틱하면서도 감동적인 서사로 그린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함께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남대 도서관은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매개로 시도민들과 소통하며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